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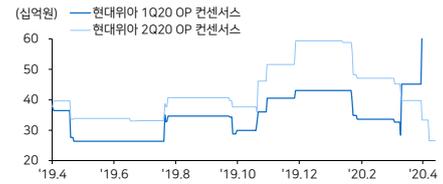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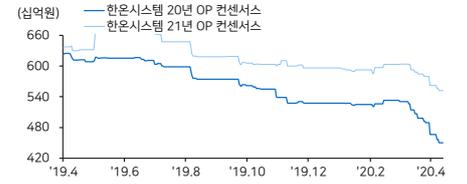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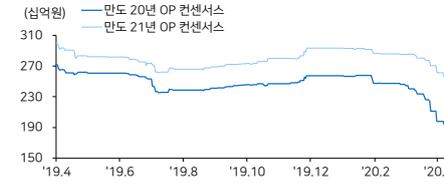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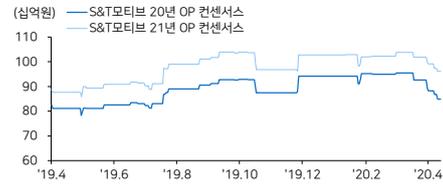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속속 '가동 재개'...숨통 트이나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현대기아차 해외공장이 속속 조업을 재개하고 있음. 다만 아직 가동률이 평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https://bit.ly/2VH8Bf5>

현대차 노조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 (경상일보)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보다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에 불안감이 커지고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자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검토하고 나선 것.
<https://bit.ly/2KipGp7>

기아차, 인도산 부품 공급 문제로 '셀토스' 생산 차질 (뉴데일리경제)

기아자동차가 소형 SUV 셀토스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 기아차는 셀토스 계기판에 들어가는 3.5인치 디스플레이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광우 1공장에서 셀토스의 일부 트림(세부 모델) 생산이 사실상 멈춘 상황.
<https://bit.ly/3ewa937>

독일 자동차 제조사, 5월부터 생산 재개 (글로벌포트뉴스)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20일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재개할 전망. 독일 메르셀 쉐리는 지난 15일, 20일부터 상가의 영업을 일부 재개하고 5월 4일부터 학교 운영도 재개한다고 밝힘.
<https://bit.ly/3cAp7TB>

살아난 중국车市장...현대·기아차도 힘 받나 (서울경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 지난달 중국에서 시장 평균을 웃도는 판매 증가율을 보였던 현대·기아차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옴.
<https://bit.ly/2VIL786>

기아차 '국내공장 3곳 휴무' 노사합의 중단 (동아일보)

기아차 노사가 수출 절벽으로 인한 국내 공장 가동 중단 합의를 중단. 기아차 노사는 소하리 1·2공장과 광주2공장을 23일부터 29일까지 중단하려던 논의를 잠정 중단. 임금 손실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임.
<https://bit.ly/3al5FJ6>

*4월 자동차 수출 반토막...부품업체 출도산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4월 국내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또 부품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원금이 바닥나고 있어 자동차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 33조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https://bit.ly/2Vji3oS>

테슬라, 전기차 최초 미국 KBB '최우수 럭셔리 브랜드' 석권 (경향신문)

세계적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전문평가기관 KelleyBlueBook(KBB)의 '2020년 럭셔리 브랜드 어워드'에서 5개 부문에 선정되며 최다 수상 브랜드가 됐다 17일 밝힘.
<https://bit.ly/2Vksic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